***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3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1호

한일투자협정서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 반대 집회

투자협정 · WTO반대국민행동과 전국민중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범혜사 앞에서 김대중대통령 · 고이즈미 일본총리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 반대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상임의장은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경제침략의 폭탄인 투자협정을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화려한 겉포장 속에 담아왔다≫며 ≪일본의 아시아 경제침략 음모를 거두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국의 주권 총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총독부 사령관 정도로 생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에서 ≪한일투자협정 N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오하타 류이치씨는 ≪현재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의 경제를 손아귀에 넣기 위한 야욕의 발로인 투자협정 체결에 힘쓰기보다 자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한일투자협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렸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이들의 의견을 담은 항의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고, 이날 오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한일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한-일 민중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위원회는 과거 일제 침략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이 월드컵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며 고이즈미 방한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라는 명분만을 내세우고 은근슬쩍 과거 잘못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자를 능멸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추진위는 △일제 강점하 한국인 강제연행 자료 완전공개 △전쟁피해조사회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징용피해자들의 미불금 상환 등 피해자 배상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의 자위대 파견문제와 관련, 일본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버리고 동아시아 평화 기여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2

≪육탄≫으로 장갑차 막아선 시위대

RSOI/FE 02 연습이 진행되던 22일 오후 1시 50분경 포항 영덕군의 한 해변. 평소에는 해수욕장으로 쓰였을 법한 모래사장 위에 완전 군장을 갖춘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란 깃발을 든 군인들은 수신호로 어딘가와 계속 연락을 분주히 주고 받고 있다.

장갑차들은 일제히 연기를 내뿜으며 일렬로 늘어선채 해안가를 향해 돌진했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기관총이 난사됐다. 상륙작전 리허설은 크게 축소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장갑차들이 해안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장갑차가 상륙하고 있는 해안가로 뛰어들었다.

≪한반도 전쟁책동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그간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소속 회원 8명이 3미터 정도 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장갑차를 막아선 것이다. 당황한 군인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장갑차는 계속 해안가로 올라오고 있었고 이들은 계속 장갑차를 향해 뛰어들었다.

이들은 심지어 장갑차에서 내리는 해병대를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 시위대는 리허설이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 철거가≫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한미 군사당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땅에 기어코 핵전쟁의 불씨를 붙이려는 전쟁광 부시와 사대매국노들의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이라면서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출정식≫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도전, 우리에 대한 도발

얼마전 리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자민련≫의 일부 ≪의원≫나부랭이들을 꼬드겨 이른바 ≪보수출정식≫이라는 주제로 ≪후원의 밤≫행사라는것을 벌려 놓고 저들의 집권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지어 감히 존엄 높은 우리의 체제를 걸고 악담질을 해대는 망동까지 저질렀다.

20일부 ≪로동신문≫은 이 광대놀음을 벌린것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반미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도발이라고 단죄하였다.

리회창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이야 어찌되든 오직 제 하나의 향락과 집권욕만 생각하는 너절한 시정배이다.이번의 ≪보수출정식≫이라는 광대놀음은 바로 골수에까지 들어 찬 그의 권력야욕의 구체적발로이다. 그들이 ≪악의 축≫망발에 이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호전적폭언을 련발하며 조선민족을 핵전쟁희생물로 만들지 못해 악을 쓰는 미국을 ≪평화의 사도≫로 추어 올린것도, 통일애국자들을 ≪정신병환자≫로 모독한것도, 우리 체제를 감히 걸고 든것도 다 상전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하나 집권해 보려는 비렬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리회창패당과 같은 우환거리는 한시바삐 들어 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친미반동보수세력이 벌리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호전적공세를 거족적인 반미자주통일투쟁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3월 20일

2 노작
-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1)

4 세기와더불어
- 4장 8절 두만강을 건너 (1)

6 칭송
- 불면불휴의 군현지시찰
- 백두산 서체 앞에서
- 주체의 모범의 나라

7 구국의 소리
- 반전반미투쟁에 백만학도 총분기해 나서자
- 부시가 몰아온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자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1일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0~21일 보도
-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승을 떨칠것이다 – 노동신문사설 3월 20일

11 평양방송
- 전기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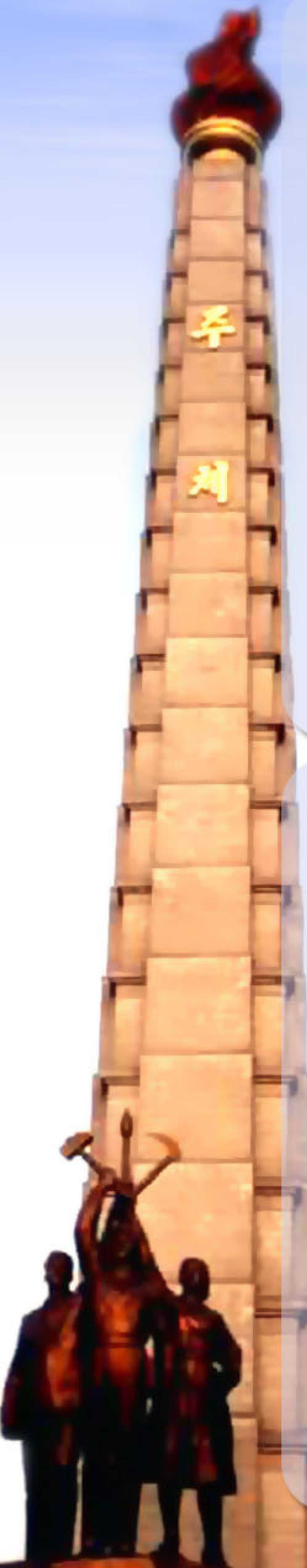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한 · 일투자협정체결은 경제식민지로 가는 지름길
- 한 · 일역사공동연구를 제대로 하라
- 포항, 한미연합훈련장에서 ≪훈련중단≫ 촉구
- 한총련, 미국제품 불매운동 선언
- 한나라당–노무현 죽이기, 이인제 살리기
- 남북 민간차원, ≪아리랑축전≫ 참가 본격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2)

16 조국통일3대헌장
-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1)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재미교포들과 한 담화 주체82(1993)년 3월 11일



나는 오늘 미국에서 온 선생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들이 지금 정세가 매우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들을 만나주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생들을 만나주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나는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지만 선생들이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갈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 왔기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여 선생들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선생들이 조국에 와서 우리 일군들과 담화도 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도 하였기때문에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충분히 리해하였으리라고 보면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중요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나는 그전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를 만났을 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조국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민족대단결입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자주의 원칙도 지킬수 있고 평화통일의 원칙도 더 잘 관철할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기회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입니다.

선생들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북과 남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련방제를 실시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들이 남조선에서 살아 보아서 알겠지만 남조선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카나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자본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완전히 틀어 쥐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공업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남조선공업에서 자체의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텔레비죤수상기 같은것만 놓고 보아도 틀거리나 만들고 부속품들은 거의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조립한다고 합니다. 남조선경제는 예속적인 수출주도형경제이고 그 명맥은 큰 나라들이 틀어쥐고 있기때문에 이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면 하루아침에 질식되고 맙니다.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은 남조선이 사회주의화되면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빼앗길것 같아 겁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사회주의화하여 우리의 적대국들을 더 많이 만들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여 남조선에 투자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그대로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를 자본주의화하는것도 반대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여 있으며 인민들은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자본주의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인민들이 좋아 하는 사회주의사회를 남조선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로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경제건설에서 난관을 좀 겪는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고수해 나갈것이며 절대로 남조선처럼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 인민들을 외국독점자본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을것입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기자고 합니다. 우리는 후대들이 이 문제를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잘 운영해 나간다면 남조선경제도 외국자본의 예속에서 점차 벗어 나게 될것이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도 더욱 강화되게 될것입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는 반드시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하려는것은 그 어떤 강대국이 되기 위한것도 아니며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 되기 위한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 주변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큰 나라들이 많으며 이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각축전을 벌려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날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에 물 젖어 자주성을 잃고 주변의 큰 나라들에 의존하다보니 종당에는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통일된 련방국가가 큰 나라들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기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는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련방제조국통일방안을 내놓을 때 통일된 련방국가는 반드시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도 늘 그렇게 말하군 합니다.

이전에 오지리수상을 하던 사람이 나를 찾아 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 여러 나라 의사들을 초청하여 여러해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나라의 고려의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고려의학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학입니다. 나는 오지리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통하여 그가 우리 나라 고려의사들을 초청한다는 말을 듣고 유능한 고려의사들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의사들이 오지리에 가서 그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친 이전 오지리수상은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김일성**주석을 만나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 담화하면서 당신네 나라가 중립국으로 된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 있는 나라는 중립정책을 쓰는것이 제일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고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면 주변의 큰 나라들이 위성국으로 만들지 못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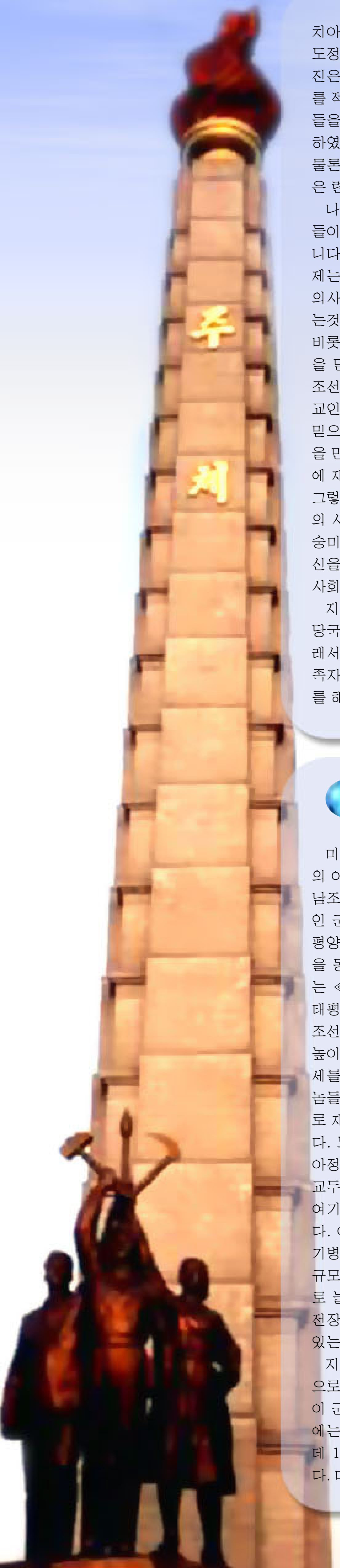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의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르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외동포들속에도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될수 있습니다.

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로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한 종교인들까지 묶어 세웠습니다. 나는 백두산일대에 진출하여 무장투쟁을 벌릴 때 북부조선일대의 천도교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결심을 가지게 된것은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가 민족적인 종교이고 교인들의 반일감정이 높았기때문이였습니다. 당시 천도교중앙의 교령은 최린이였는데 그는 변절하여 교인들에게 일본의 승인을 받아 자치를 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일본의 승인을 받아 자치를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도교인들이 최린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결국 천도교는 두개의 파로 갈라 지게 되였습니다.

나는 반일적인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의 기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치아래 묶어 세우기 위하여 천도교 함경남도 도정이였던 박인진을 포섭하였습니다. 박인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보고 우리를 적극 지지하여 나섰으며 광범한 천도교인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풍산, 삼수일대는 물론, 창성, 삭주일대의 천도교인들과도 깊은 련계를 가졌습니다.

나는 해방후에도 종교인들을 포섭하여 그들이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종교인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 빼고 민족자주의식을 심어 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량욱목사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을 만나서는 ≪하느님≫을 믿어도 서양의 ≪하느님≫을 믿지 말고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였으며 불교인들을 만나서는 조선의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종교인들을 만나면 늘 그렇게 말해 주군 합니다. 그전에 재미교포인 김성락목사를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였기때문에 그들이 숭미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 나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와 손을 잡고 새 사회건설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당국자들과도 될수록 단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신년사에서 그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집권자도 ≪대통령≫취임연설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봄날 한나산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천지못가에서도 좋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김일성**주석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집권자의 말에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하여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나를 만나겠다고 한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조선집권자가 진심으로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 나도 그를 만나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당장 만나겠는가 하는것은 더 연구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남조선집권자가 ≪대통령≫감투를 쓰기는 하였지만 군부도 쥐지 못하고 ≪안기부≫도 쥐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사실 실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남최고위급회담에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참가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심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기회에 련방제방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국통일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방안들은 다 나라를 통일하자는것이지 통일에 방해되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남조선집권자가 어떤 립장과 자세로 나오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20여만명의 대병력과 현대적인 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미제와 함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한것은 현 남조선집권자가 아니라 전 남조선집권자입니다.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발표하고 판문점에 리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집까지 짓자고 약속하였으나 전 남조선집권자는 그에 도전하여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입니다.

적들이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것입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미제침략자들이 ≪팀 스리피트(합동정신)≫의 이름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리고 있는 모험적이며 침략적인 군사훈련. 미제가 남조선과 미국본토, 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부력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1976년부터 해마다 벌리고 있는 ≪팀 스피리트≫군사훈련은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의 방대한 미제침략군무력의 남조선에로의 기동전개능력과 련합작전능력을 높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투준비태세를 검토완성하기 위한 침공작전훈련이며 놈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할 때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실전훈련이며 시험전쟁이다. 도발적인 이 군사훈련은 미제의 대아시아정책의 산물로서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전 조선반도를 장악하는것, 바로 여기에 이 훈련을 벌리는 궁극적목적이 있다. 이 군사훈련이 초기에는 미국본토의 자기병력을 남조선에 긴급수송하는 정도의 소규모훈련이였으나 그후 이 훈련은 계단식으로 늘어 나 이에 참가하는 병력수에서나 작전장비에서 옹근 하나의 큰 전쟁을 치를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였다.

지난 10년동안 훈련참가병력은 4.5배이상으로, 훈련기간은 7.6배로 늘어 났다. 미제는 이 군사훈련에 정규무력만이 아니라 1978년에는 1만명의 ≪예비군≫무력도 참가시켰는데 1984년에는 그것이 10만명으로 늘어 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에 비단 병력수만 아니라 여기에 동원되는 무기와 작전장비들도 체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 군사훈련이 처음에는 상용무기에 의한 훈련에 기본을 두었으나 그후 이 훈련에는 전술적핵무기를 비롯한 최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 그리고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 ≪비 52≫전략폭격기와 ≪에프 16≫전투폭격기를 비롯하여 핵탄을 장비하고 발사할수 있는 전쟁수단들이 투입되였다. 특히 1985년도의 훈련에는 오래전부터 ≪핵배낭≫훈련을 해 온 특수부대인 ≪푸른 베레모≫까지 끌어 들여 직접 ≪핵배낭≫을 지고 상대측후방에 침투하여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고 모조리 불 태우는 악마의 훈련까지 감행하고 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은 계단식으로 확대되면서 그 성격도 더욱더 공격형으로 바꾸어 지고 있다. 한 때 이 훈련에서 방어와 공격을 결합하여 진행하던 미제는 1981년부터 전면적인 공격훈련에 들어 서기 시작하였으며 훈련내용에서 공격과 방어의 비률은 8대 1이다. 미제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공격전략≫은 상용무력과 핵무기, 전자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립체적으로 동원하여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공화국의 전 지역을 전쟁터로 삼을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훈련은 핵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단기전쟁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한 훈련지대도 종전의 한강 이남지역으로부터 한강이북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바싹 북상시켜 이 지대를 사실상 북침을 위한 공격출발진지로 삼고 있다. 미제는 ≪팀 스리피트≫합동군사훈련을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미제는 이 군사훈련을 통하여 미일남조선이 공동작전계획에 따라 공동군사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미 미국 일본, 미국남조선사이의 작전지휘 체계의 일원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리하여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총사령부와 도꾜에 있는 핵전쟁지휘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자위대≫의 ≪중앙지휘소≫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련합사령부의 지휘통신 정보 체계가 하나로 련결된 공동작전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비도발적인 년례행사≫로, 이른바 ≪남침위협≫에 대비한 ≪방위훈련≫으로 묘사하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하고 있으나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이 군사연습이 단순한 훈련의 테두리를 벗어 나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 갈수 있는 예비전쟁이라는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벌리고 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은 놈들이 떠벌이고 있는 ≪긴장완화≫요, ≪평화≫요 하는것이 거짓말이며 그들이 조선에서 추구하는것은 의연히 전쟁과 분렬정책이라는것을 그대로 확증하여 주고 있다.

8. 두만강을 건너(1)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간도사람들이 투쟁력이 강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였다. 나도 5.30폭동과 8.1폭동까지 겪고나서 간도지방의 조선사람들이 뛰어난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간도나 북부조선 일대는 일찍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활동무대로 되여왔다. 로씨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으로 맑스-레닌주의사조도 이 지역에 먼저 전파되였다. 간도일대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지도자들속에서 나타난 소부르조아적 조급성으로 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것만큼 나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간도일대를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이 일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함께 간도를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일대를 만몽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고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세기초부터 동만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야기시킨 것은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다리를 놓자는데 있었다.

1907년 8월에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연길현 룡정에 군대를 침입시켜 거기에 ≪조선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였고 1909년에는 중국반동정부를 꾀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길회선철도공사권까지 탈취하였다. 그후 룡정의 ≪조선통감부파출소≫는 일본총영사관으로 승격되였다. 일제가 룡정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것이나 그 아래에 다섯 개나 되는 영사관 분관까지 내온 것은 간도에 와있는 조선사람들을 호강시키자고 한 짓이 아니였다. 그들은 그런 영사기구에도 각지에 경찰서들을 배치하고 조선인거류민회의와 같은 주구단체들을 무수히 만들어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오중화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였다. 동양척식회사 출장소와 금융계도 이곳에 줄을 뻗치고 있었다. 동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있었다.

이처럼 동만지방은 혁명과 반혁명과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백두산수림지대와 함께 동만을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8.1폭동을 겪은 후 박두하고 있는 일제의 만주침략의 징조를 이모저모에서 느끼고 있던 나는 혁명성이 강한 동만인민들을 묶어세워 한시바삐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래서 동만으로 나갔다.

내가 처음 동만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우리 동무들은 만류하였다. 일제의 폭압기구와 정보망들이 거미줄처럼 늘여져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험이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치고 대담하게 동만으로 나갔다. 그때까지 나의 활동은 주로 도시 청년들과 학생들속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할 수 있다.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의 요구에 맞게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자면 우리들 자신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제와의 항전에로 하루 빨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국제당에서도 내가 동만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나는 먼저 돈화로 향하였다. 이 일대가 8.1폭동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 때문이였다. 돈화는 이 폭동의 근원지였고 중심무대였다.

여기에는 일본군의 한개 수비대본부와 길림총영사관 산하의 영사관분관이 있었으며 구동북군의 677련대가 있었다. 적의 폭압역량이 이처럼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폭동이 일어난 것은 이 일대에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한 사정과 관련된다. 돈화는 반석과 함께 엠엘파의 본거지였으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한개 중심이기도 하였다. 박을세, 마건과 같은 8.1폭동의 주모자들도 바로 이 고장에 활동기지를 두고 있었다.

돈화에는 당 및 공청,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우리가 꾸려놓은 여러 가지 혁명조직들이 있었고 진한장, 고재봉, 고일봉과 같은 믿음직한 동지들이 있었다.

나는 돈화에 가자 진한장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중국산둥옷을 입고 다니면서 폭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벌이였다. 내가 길림에서 공청소조들을 도처에 꾸려놓을 때 중학교에 다니던 진한장도 돈화에서 우리 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에는 그가 오의성부대 총사령부에서 비서장으로서도 활약하고 동북항일연합군에서 사단참모장, 사장, 방면군 군장, 남만당위원회 서기 등도 역임하였지만 그때는 소박하고 조용한 공청원이였다.

진한장은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아들이였으나 혁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청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진한장의 아버지는 큰 부농으로서 말도 몇 백필씩 가지고 있었고 총도 여러 자루 갖추고 있었다. 집주변에 토성까지 치고 있어 그 위풍이 간단치 않았다. 그는 농담삼아 나에게 자기네는 원래 타도대상인데 집주변이 다 제땅이므로 남의 땅의 밟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집 땅이 딱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자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진한장은 공산주의를 배워진 선배라고 하면서 나를 환대해주었다. 생활이 유족하다보니 그 집에서는 내가 공밥을 먹어도 아까와하지 않았다.

나는 진한장과 고재봉을 내세워 흩어진 조직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동무들을 찾아다니었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직들을 복구하였다. 이렇게 폭동의 후과를 기본 적으로 수습해놓은 다음 국제당에서 받은 위임대로 돈화에서 길동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고재봉을 비롯한 몇몇 공청원들이 나에게서 두만강연안의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 대중을 혁명화하며 당조직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받아가지고 활동구역으로 떠나갔다.

나도 진한장에게 돈화중학교에 들어가서 공청활동을 하라고 과업을 주고 돈화를 떠났다.

내가 동만에 가서 맨 처음으로 들린 곳은 화룡이였다.

화룡에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조아범이라는 중국동무가 있었다. 채수항과 같은 조선동무도 있었다. 이런 줄을 타고 들어가면 폭동의 후과도 수습할 수 있고 조직들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나는 먼저 대립자라는 곳에 가서 조아범을 만났다.

조아범은 8.1폭동의 후과를 대단히 크다고 하면서 폭동후 조선동무들이 다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아범은 감옥에 들어갔던 몇몇 동무들이 인차 석방된 것 같으니 만나보라고 하였다.

며칠후 채수항이 연락을 받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원래 용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였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와서 사범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영향을 받고 혁명사업을 시작하였다. 채수항은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축구선수로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 여러명의 화룡출신의 청년들이 길림에 와서 공부하였다. 김준이 룡정과 온성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면 채수항은 화룡과 종성 지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후에 현당서기로 사업하다가 ≪민생단≫연루자로 몰려 억울하게 학살당한 김일환동무와 함께 공청도 조직하고 반제청년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꾸려 여기에 수많은 군중을 집결시켰다. 연길폭탄제조의 명수로 소문난 박연순동무도 연길현의 팔도구광산에서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모처럼 꾸려놓은 조직들이 두 차례의 폭동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많은 핵심들이 잡혀가거나 지하로 들어갔고 얼마 안남은 조직성원들마저 세련이 부족한 탓으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실태는 나로 하여금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카륜을 떠난 후 길림, 해룡, 청원, 교하, 할빈, 돈화를 거쳐 화룡까지 오는 과정에서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동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만인을 공감시키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있고 자

채수항

체의 혁명역량이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체득할 때에 생기며 투쟁을 통하여 굳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폭동을 선동한 사람들은 대중이 기치로 삼을만한 강령이나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카륜에서 채택한 혁명로선은 아직 인민들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채수항을 비롯한 몇몇 공청, 반제청년동맹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그들에게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을 상세하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신망있는 동무들로 지도핵심을 잘 꾸리며 파괴된 대중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그 대열을 부단히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두만강연안의 매개 현들에 혁명조직구를 내올데 대한 과업도 이때 주었다.

폭동조직자들은 감옥과 교수대가 두려워 대중을 총검앞에 남겨두고 다 도피하였지만 우리는 폭동의 후과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가 산동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화룡의 동무들은 나를 ≪산동청년≫이라고 불렀다.

내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왕청이였다. 내가 왕청에 들린 목적은 오중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오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김준, 채수항 동무들이였다. 그들이 길림에 들락날락할 때부터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똑똑하다는 식으로 인물소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길림에 있으면서도 간도일대의 사정을 비교적 환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기억해두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어이 손을 잡고 동지로 포섭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진정한 동지를 얼마만큼 많이 얻는가에 따라 혁명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동지 한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흘을 굶어도 좋고 열흘을 굶어도 좋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심정이였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왕청에도 들리였다. 채수항이 화룡에서부터 왕청 석현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석현에서 오중화도 만나고 오중흡도 만나고 오태희노인도 만나보았다.

오태희노인네 집안은 보기 드문 대가정이였다. 노인네 네형제는 원래 함경북도 온성군 고작골이라는데서 살다가 1914년경에 왕청땅에 이사하였다. 그 네형제의 자손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명이 되는데 그들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왕청과 온성땅에 쭉 널려살면서 혁명사업을 하였다. 그 당시 오중화는 왕청5구 당비서로 사업하였고 오중흡은 왕청현 춘화향 원가점에서 공청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중화의 동생인 오중성은 왕청현 석현에서 공청활동을 하다가 1929년초에 온성군 풍리동으로 이사하여 보문학당 교원을 간판을 가지고 혁명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중화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룡에 있는 사립화성학교 교원을 하였다. 나는 그때 석현에 가서 오중화동무에게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오중화는 그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그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척들 가운데서 10여명이 충실한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였다. 그 가운데서 오중화, 오중성, 오중흡과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이 배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석현에서 일을 끝낸 나는 그달음으로 온정지구에 건너갈 것을 결심하였다. 서도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국살이를 시작한 나에게 두만강 이남의 륙읍일대에 대한 과업이 별로 없었다.

륙읍일대는 리조때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양반들이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이였다. 곡식이 바르고 기후가 엄혹한데다가 우두머리들의 구박과 학대가 심해서 변방수비에 동원된 군사들이 여기에 왔다가도 인차 다른 고장으로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벼슬자리를 하는 자들도 이 일대의 관리로 가라고 하면 다들 끔찍해하였다. 그들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도 여기에 오기가 싫어서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가며 서울거리에서 빈둥거렸다. 봉건통치배들이 그것때문에 500년동안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나는 김준이 륙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상들은 이 땅을 불모지라고 잘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피땀을 바쳐 이 일대를 혁명의 요새로 만들어보자고 말하였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온성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밑에 1920년대말부터 김준, 채수항, 오중성과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고장이였다. 우리는 벌써 그때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백두산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륙읍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전쟁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꾸릴 계획을 품고 있었다.

국내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 돌파구도 바로 여기에서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그 당시 온성지구에서는 100－150명의 청년들이 룡정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그들이 방학때마다 고향에 돌아오면 우리와의 연계가 깊은 김준, 오중성과 같은 선각자들의 지도밑에 이 일대에 길림바람을 불어넣었다.

온성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의 지부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로 세력을 뻗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였다. 이 발판을 타고 온성지구에 우리의 사상이 적지 않게 흘러들어갔다.

(내일 계속)

두루봉혁명사적비

일화

불면불휴의 군현지시찰

장군님께서는 설날과 일요일은 물론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기념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신일인 태양절, 자신의 탄신절조차도 군시찰의 길에서 보내신다.

장군님께서는 1997년 4월 15일에는 전선동부 1211고지를 방어하고 있는 군부대와 그 린접에 있는 리수복영웅중대군인들, 지혜산을 방어하고 있는 군인들을 찾으시였으며 1998년 4월 15일에는 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를, 1999년 4월 15일에는 인민군 금성친위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자나깨나 주석님을 그리워 하시고 언제나 마음속깊이 주석님에 대한 생각이 사무쳐 있는 장군님께서 태양절이면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석님을 만나뵙고 마음속 말씀도 드리고 싶은 심정 간절하시련만 태양절을 맞아 주석님을 그리워 할 인민군전사들이 마음에 걸리시여 이렇듯 최전연길을 걷고 걸으시는것이다.

명절날도 휴식일도 없이 낮에 밤을 이어 군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는 **김정일**장군께서는 언제 한번 편히 주무시고 끼니를 제대로 하시는적이 없다.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나날도 여전히 ≪쪽잠≫과 ≪줴기밥≫으로 이어 지는 숭고한 헌신의 나날이다.

장군님께서는 어느 날 일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현지지도로 날과 날을 보내기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것은 현지지도의 길의 자동차안에서 잠간 눈을 붙이는것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여 오히려 침대에서 자는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나에게는 자동차안에서 조금 자는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것을 고생으로 생각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기에서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군 합니다.≫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는 말씀이다.

현지지도로 밤과 낮을 보내시면서 차안의 의자등받이에 기대시여 쪽잠에 드신 장군님, 쪽잠에 너무나 습관이 되시여 침대에서 주무시는것을 불편해하시는 장군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그려 보면 목이 메이고 머리가 절로 숙어 진다.

진정 **김정일**장군은 헌신의 화신이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현지시찰의 길에서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하실뿐아니라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고 계신다.

1998년 4월 15일 태양절에 최전연의 한 부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기다리겠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나 한끼 같이 하자고 하시며 식당으로 가시였다. 그리하여 군부대장병들은 영광스럽게도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점심상에 둘러 앉게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모두 좀더 가까이에 나앉으라고 이르시고는 ≪변변치는 못하지만 내가 싸온 점심밥이 있으니 같이 듭시다.≫라고 하시며 마련해 가지고 오신 점심곽을 풀어 놓으시였다.

순간 군인들은 왈칵 쏟아 져 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장군님께서 내놓으신것은 뜻밖에도 줴기밥이였던것이다. 크지 않은 줴기밥에 몇가지의 보통나물채… 바로 이것이 가장 뜻 깊은 명절날에 장군님께서 드시려는 점심식사였다.

아,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고 나라의 식량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어떻게 장군님께 이런 식사를 드릴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귀중하신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실수 있는가, 장군님께서 검박하시고 겸허하시여 좋은 식사를 마다하시여도 어떻게 이런 식사를, 그것도 명절날에 드시게 할수 있는가, 장병들은 너무도 격하여 장군님을 모시고 온 일군들을 원망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자, 어서들 드시오. 그래야 나도 먹을게 아니요.≫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지만 군인들은 수저를 들지 못했다 한다.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명절날에조차 줴기밥을 싸가지고 다니시며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는분이 바로 **김정일**장군이시다.

세상에는 위인, 명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이 전해 지고 있지만 쪽잠과 줴기밥으로 군령도의 나날을 보냈다는 정치지도자, 군통수자의 이야기는 력사의 어느 갈피, 위인전의 어느 대목에도 없다.

쪽잠과 줴기밥에 대한 이야기는 헌신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께서만이 력사와 후세앞에 남기실수 있는 위대한 사화이라고 격찬하지 않을수 없다.

송시

백두산 서체 앞에서

임기철

남북공동선언에 수표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필체
그 이름 빛난다 백두산 서체
보고 또 보아도 그저 필체가 아니다
이름 그대로 과시 백두의 기상이야,
백두의 기상이야

기나긴 분단세월 순간에 끝장내실
대용단이 비끼어
폭풍치며 내닫는 백두의 눈보라처럼
저리도 속도감 나래칠까
우리 민족끼리 얼마든지
통일의 문 열수 있다는 배짱이 어려
천하를 꽉채운 백두의 웅자인양
저리도 자신감 넘치는 걸까

어찌보면 분단의 검은 구름 찍 가르며
백두산정 정일봉에 번쩍이던
번개의 섬광이 이는 듯
다시보면 백두의 장군이
경진년 6월, 용의 해에 남기신 필체여서
백두의 천지의 용이
통일새날 마중해 승천하는 듯

너무너무 멋있어
순간에 매혹된 이남의 남녀노소
열심으로 익혀가는 저 필체
백두산 식솔들이 닮아가는 필체

이제 **김정일**장군님
한번 더 붓을 들어 수표하시면
확신한다. 그때엔
남북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통일선언이 되리라
통일조국의 실록은 서문부터
오- 백두산 서체로 수록되리라

흠모

전 세계 피압박인민들은 조선을 ≪주체의 모범의 나라≫로 칭송하면서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 ≪주체의 모범의 나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고 있다. 인도주체사상연구 우따르쁘라데쉬 위원장 엘. 디. 타쿠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식의주문제에 대한 아무런 걱정을 모르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각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날에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는 나라로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 되었으며 조선의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위력한 경제입니다. 전 세계 피압박인민들은 조선을 ≪주체의 모범의 나라≫로 칭송하면서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주체사상연구 가이아나전국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윌리암스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으며 조선은 ≪주체의 조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신의 지극한 효성과 충성심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에게 돌려주시는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조선인민의 오늘과 내일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신께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아싸둘라의 한 주식회사 사장 가잔파트 알리 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위대한 민족이며 위대한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융성번영하며 세계를 인류의 복리를 위한 옳은 길로 영도하여 줄 것을 축원합니다.≫

이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린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각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주체사상의 전 세계사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기회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각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전반미투쟁에 백만학도 총분기해 나서자

청년학생 여러분!

오늘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으로 인해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는 해마다 별도로 진행하던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서 벌여놓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와 일본 그리고 괌도 등 해외주둔 미군병력 수만명을 포함한 한미연합군 50만명이상이 참가하는데다 각각 따로 실시되어온 두 개의 군사훈련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해서 사상최대의 전쟁연습으로 됩니다. 이것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현으로써 계획적인 북침전쟁연습의 일환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부시의 방한이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시의 방한이 철두철미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침략행각이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부르짖던 북침전쟁이 이제는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 정초부터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뎠습니다. 반테러를 구실로 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반대, 이북에 대한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그의 방한을 계기로 타오른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의 불길,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 등 연이은 투쟁으로 이 땅을 뜨겁게 달군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투쟁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굳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염원에 도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프간에서 터뜨린 반테러전쟁의 불집을 한반도에로 확대하여 제2의 아프간전쟁을 도발하려는 극히 무모한 침략책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을 북의 도발에 대처한다는 허구적인 궤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미국의 파렴치한 반북히스테리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민심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한반도에 한시바삐 평화가 깃들고 자주통일의 새국면이 펼쳐지게 되기를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깝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새해 벽두에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의했습니다. 지난 1월 이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제안한 3대호소, 3대제의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지지 호응하여 민족자주통일성업투쟁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정부는 예년에 없는 대북강경정책과 무력증강책동, ≪악의 축≫발언으로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마저 무산시켜 버리도록 이남의 우익보수세력을 부추겼습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떠드는 남침위협과 한반도평화, 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는 완전히 거짓이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교란자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여놓은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은 또한 날로 높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반미투쟁기운을 군사적 위협으로 압살하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정초부터 시작되어 부시방한을 계기로 고조된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그 폭과 심도, 열의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이였습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심지어 정치권까지 망라된 부시방한반대투쟁과 반미투쟁들은 부시에게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의지를 똑바로 보여주고 전율케한 일대 과시로 됩니다.

당황한 부시행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의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압살하려는 흉계밑에 해마다 따로따로 실시하던 두 개의 군사연습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규모를 사상최대로 했고 훈련날짜도 청년학생들과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는 봄철투쟁에 맞추어 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의 교살자일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투쟁마저 압살하려는 우리 국민의 철천지원수임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현 시국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미국의 침략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이 침략전쟁연습을 그냥 놔둔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 들고 우리 민중이 그 피해자로 될 것이며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염원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생존권을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며 통일애국에 불타는 백만청년학생들은 시국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서 반전반미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야 합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학생들속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저의와 그 악결과를 널리 알려주어 이를 저지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백만학도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 사이에 연계를 긴밀히 하여 조직적인 동시다발투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연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한총련에 대한 테러단체규정반대, 이적단체규정철회,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기지철폐, 무기강매반대 등 투쟁들을 계속 힘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이 모든 투쟁을 한미연합군사훈련반대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대중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능동적으로 구사활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전반미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이 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운동핵심들과 청년학생들은 각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걸맞게 인터넷홍보, 거리홍보, 노래패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과 악결과를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며 그들이 투쟁에 적극 동참해나서도록 해야합니다.

노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존권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세계화의 원흉인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걸 깊이 알려주어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 수입농산물반대투쟁이 전면적인 반미투쟁에로 지향되도록 선도자적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부시방한반대투쟁의 경험을 적극 살려 각계각층 민중들이 벌이는 여러 형식의 반미투쟁들에 적극 지지동참하여 범국민적인 반미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양된 국민들의 반미투쟁기운을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반대투쟁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반전반미투쟁에로 지향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조국과 민중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주저없이 한몸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이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전반미투쟁에 총분기해나섬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전반미투쟁에 백만학도 총분기해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렸는데요. 반전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자면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9.11테러를 구실로 반테러의 명목아래 대북강경책동에 열을 올리고 ≪악의 축≫발언을 거듭하면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선군의 기치 드높이 전진하는 이북의 기상에 눌리워 궁지에 빠진 자들이 출로를 찾아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 떠드는 이른바 강대성의 신화는 이미 산산조각 난지 오래죠.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허장성세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약점, 위기에 빠져있으면서도 최후발악하는 미국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 이 땅에 자주의 새봄, 통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겁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0일~21일

부시가 몰아온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자

얼마전에 전쟁광신자 부시가 한국행각을 단행했는데요. 부시의 행각에 이어 연속 이어지는 미국호전광들의 방한과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이 땅위에는 시시각각으로 핵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시가 몰아온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민중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부시미대통령이 끝끝내 한국행각을 단행했는데요. 부시가 왔다간 이후 이 땅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나날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광신자,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우는 부시가 이 땅에 몰아온 먹구름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북침 핵전쟁의 불구름입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망발을 연발하면서 고의적으로 한반도에 분열과 대결의 냉전기류를 몰아왔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높아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왔습니다. 이번 부시의 방한도 6.15공동선언을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의 길을 기어코 가로막고 새로운 핵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데 있습니다.

부시의 방한과 때를 같이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한미군이 매일 140여대의 전투기들을 내몰아 전쟁연습을 벌인 것만 봐도 부시가 어떤 먹구름을 이 땅에 몰아왔는가를 단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또다시 강조한 호전광부시가 이 땅을 떠나자마자 잇따라 벌어지는 ≪RSOI≫와 ≪독수리≫를 통합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은 지금 한반도에 어떤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미 전에 미국이 주한미군 제8군을 전시체제인 야전군체계로 개편하고 이 땅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보다 공격체계로 완성하는 한편 제2의 북침전쟁계획인 ≪5027-98≫을 짜놓고 그 실행을 위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연일 벌여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광부시의 방한은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검토하고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자는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니였습니다. 때문에 부시의 방한자체가 전쟁이라고 비판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씨를 비롯한 우리 민중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저지투쟁에 결사분기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치솟는다면 그건 민족공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의 일방적인 세계 패권주의로 우리 민중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거점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건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입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패권주의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농락당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적 야망에 의해 민족이 공멸할 위기에 처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민중은 누구나가 다 반미반전투쟁에 나서 부시가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민중이 살고 민족의 번영하는 길이 있습니다. 당면해서는 ≪RSOI≫와 ≪독수리≫를 통합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저지분쇄하는 투쟁에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앞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미국의 경제침탈과 전쟁책동으로 인해 가장 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입니다. 우리 노농대중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과 어깨 겯고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분기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분쇄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가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 우리 손으로 걷어내고 꿈에도 소원인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자주통일의 새 세상을 마련합시다.

미국이 이 땅위에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걷어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드리운 먹구름 오직 우리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서 우리 민중의 손으로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20일~21일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 91, 3월 21일

≪임오년의 태양찬가≫

최근 하나컴퓨터에서 제작한 편집한 다매체편집물 ≪임오년의 태양찬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본 한 주민이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 게시판에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철수라고 밝힌 그는 ≪임오년의 태양찬가≫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빛내이시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이 계셔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무궁번영도 기약되어 있다. 언제나 **김정일**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우러러 따르자.≫

범청학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범청학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가 남과 북, 해외에서 모사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의장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청학련의 지난해 운동방향을 결산하고 2002년 운동방향을 토의했습니다.

회의는 지난해 범청학련이 6.15공동선언지지관철을 총적 운동강령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범청학련이 6.15공동선언이행에로 해내외의 각계층 청년학생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 **을 이룩해 새 세기 첫 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새해 정초에 진행된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범청학련이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며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특히 범청학련 결성 10돌을 맞는 올해에 남북 청년학생통일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며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계기로 청년학생 통일행사를 특색있게 진행해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동결의문과 해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

이회창 수습방안 미흡
소장파모임인 미래연대

한나라당 이회창의 당내분수습안에 대한 비주류측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 소장파모임인 미래연대는 이총재의 수습방안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래연대는 20일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진뒤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회창과 당지도부는 현재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여망이 무엇인가 하는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부총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부영부총재는 이회창의 수습방안은 내분의 또다른 시작일뿐 결코 해결책이 못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소장파인 김영춘의원도 이회창의 수습방안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것이라면서 당 대외협력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덕룡, 홍사덕의원은 이번 주말쯤 거취문제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이회창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어 한나라당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퇴진 촉구

한나라당 이회창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민족앞에 대죄를 저지른 이회창은 더이상 정치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찾아가서 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반통일, 반민족적 범행이였다. 지금 각계에서 이회창을 악의 뿌리라고 비난하며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자는 정치권에 나설 자격이 없다. 이회창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하루속히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서울 중구에 사는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친일친미분자, 민족반역자일뿐 아니라 정치자금횡령과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등의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이회창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회창은 대법관시절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에게 사형선고와 장기징역 등을 내린 교형리, 살인마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앞장에서 탄압했던 자가 대통령감투를 써보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우롱이다. 이회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군사독재보다 더욱 악독한 법관독재가 실시될 것이다. 만약 이회창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물러나지 않으면 체포구속하고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한다.≫

이회창을 반대하는 기운은 한나라당내에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원이 이회창이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는데 반발해 탈당한데 이어 김덕룡, 홍사덕의원 등 비주류가 탈당움직임을 보이면서 이회창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심각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주류의 한 중진의원은 독단과 전횡으로 한나라당을 사당화하고 당을 망쳐먹은 이회창이 권력을 장악하면 무서운 독재통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회창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0~21일

김일성주석께서 주신 땅은 신념의 토양이였다

비전향장기수 전진이 ≪수령님 주신 땅이 내 신념의 토양이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글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신 귀중한 땅, 그 한줌 흙을 부둥켜 안고 거기서 조선로동당의 고마운 은정과 공화국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살아 온 자기의 삶에 대하여 쓰고 있다. 글은 남조선 전라북도 옥구에서 태여난 그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고향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상으로 분여해 주신 땅을 받은 행복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글은 그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고향땅의 흙을 한줌 주머니에 넣어 그것을 몸에 지니고 유격투쟁에 나서 용감히 싸웠으며 놈들에게 체포된후에도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 전향을 거부하라고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38년동안 굴함없이 지조를 지킨데 대하여 썼다.

진정 흙주머니는 그의 삶과 투쟁의 든든한 벗이였고 그것은 수령님 주신 땅이였고 꿈결에도 안기고 싶은 공화국품이였다고 하면서 글은 바로 거기에서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뿌리 내리고 줄기차게 자라 그를 불굴의 투쟁에로 떠밀어 주었던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은 그가 사시절 풍우에 씻기우면서도 변함을 모르는 땅처럼 한생 곧은 마음 지니고 삶의 순간순간을 이어 왔기에 판문점분리선을 떳떳이 넘을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땅을 귀중히 여기시는 애국자중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강성대국으로 꽃 피워 가시는 이 땅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자고 글은 강조하였다.

≪자위대≫ ≪비군사작전≫기한연기 요구한 미국의 속심

≪로동신문≫ 20일부는 미국이 얼마전 미일공동군사연습을 감행한데 이어 일본정부에 ≪자위대≫의 ≪비군사작전≫기한의 연기를 요구하는 등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을 더욱 조장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평하였다.

론평은 미일공동군사연습의 강화와 ≪자위대≫무력을 ≪반테로전쟁≫에 깊숙이 끌어 들이려는 미국의 기도는 그를 돌격대로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검은 속심의 발로이라고 폭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현시기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것은 조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을 먹어야 아시아지역에서 완전한 군사적지배권을 쥘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것이 미호전세력들의 견해이다.

이 세력들은 바로 일본반동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은 일본반동들과 협력하여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 미호전세력들은 일본반동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미일반동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어리석게 달려 들다가는 절대로 무사치 못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 개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가 오늘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혁명적진군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칠데 대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규약채택에 대하여≫를 의정으로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표자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김영남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축하문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선포된후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성된 난국을 앞장에서 용감하게 헤쳐 나감으로써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혔다.

이어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경호1비서가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선포후 지나온 6년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청년대오의 혼연일체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 지고 조선식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총포성 없는 결전장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위력을 더욱 힘 있게 떨쳐 온 영광과 승리의 6년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로선과 선군정치를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선군기치따라 새 세기 혁명적진군에서 돌격대, 선봉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 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통합전쟁연습은 전면북침을 가상한 공격작전연습

21일부 이곳 신문들은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리고 있는 통합전쟁연습을 ≪조선반도유사시≫핵선제타격을 위주로 하는 전면북침을 가상한 위험천만한 공격작전연습으로 규탄하였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전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것은 미제의 변함 없는 야망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실전배비해 놓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각본까지 짜놓은 미제가 군사분계선대밑에서 통합실전연습을 벌리다가 불의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면전쟁에로 이행하려 한다는것은 결코 가설이 아니다.

미국이 전쟁현훈증에 사로잡혀 핵전쟁으로 우리 인민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하는것은 미제국주의의 강도성의 발로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범죄행위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전쟁불장난소동으로 민족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오늘의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응당한 자위적선택을 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거듭 천명된바와 같이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 하지 않는다.우리의 자위적선택에는 한계가 없다.

침략자들이 기어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전쟁사에 있어 보지 못한 징벌을 당할것이며 쓰디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해치려고 덤벼 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징벌을 안기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4차 **김일성**화 전시회가 열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해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가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전시회에는 **김일성**화를 재배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단위들과 근로자들, 군인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세계 여러 나라의 원예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절세의 위인 **김일성**주석에 대한 인류의 열렬한 경모와 칭송을 불멸의 꽃으로 뜻 깊게 장식하는 태양의 꽃 축전으로 될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김일성**화는 지금 5대륙 어디에서나 피여나고 있다.

조선반도는 가장 위험한 미제의 핵전쟁발원지

≪로동신문≫ 21일부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 있는 곳은 조선반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여 있다고 하면서 글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근 부쉬행정부는 핵전략의 초점을 일부 대국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작은 나라들에 돌리고 ≪유사시≫ 핵선제공격을 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서 주목되는것은 미국이 우리를 핵공격계획의 주요대상으로 점 찍었다는것이다.

실제로 미제는 우리에 대한 핵공격작전에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 하고 있다.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핵으로 우리를 선제타격하는것이 이번 핵공격계획의 요점이다.

조선반도를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된다는 론거의 다른 하나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가 가장 많이 배치되여 있다는것이다.

미국의 무기고에는 핵탄두만도 2만여개에 달한다.

남조선에만도 1천여개의 핵무기가 전개되여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제의 전략무기숲에 둘러 싸여 있으며 언제 어디서 핵무기가 날아 올지 알수 없는 항시적인 위협속에 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남조선을 핵전초기지, 전선방위지역으로 하여 핵불꽃을 날리고 그것을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하자는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핵무기사용은 가설이나 억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부쉬행정부의 새로운 핵공격계획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아시아와 세계가 핵참화속에 말려 들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부쉬호전집단의 무모한 핵전쟁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혁명적공세로 그것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결사대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21일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이번 대표자회는 우리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떨쳐 나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해에 열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표자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청년동맹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강위력한 주체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나갔다.

지난 6년간은 우리 청년동맹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되여 온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길을 따라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청년운동을 혁명위업수행의 관건적고리로 여기시고 몸소 청년동맹을 무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청년운동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오시였다. 우리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내세워 주시고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 청년운동은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사소한 헛갈림도 없이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걸어 올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독창적인 청년중시의 사상과 령도로 우리 청년들을 당의 청년전위로,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존엄 높은 이름과 더불어 만대에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중시사상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 청년운동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청년동맹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우리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시는 준엄한 나날에도 청년중시를 일관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 쥐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는 우리 청년동맹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청년동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도 뜨겁게 어려 있다. 우리 청년동맹과 청년들을 당의 미더운 길동무라고 불러 주시며 어려운 시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큰 대회도 마련해 주시고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도 통채로 맡겨 주시여 청년들을 창조와 건설의 영웅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청년운동사에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사상과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청년대오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관철해 나가는 수령옹위의 결정체로 튼튼히 다져 지게 되였다.

. .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걸어 온 로정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는 충성의 청년대오로 억세게 자라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긍지 높은 로정이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청년운동은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 섰다.오늘의 시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선군시대이다.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는 없다.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면 자주적인간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버리면 노예가 된다는것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다져 진 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의 전체 청년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맨 앞장에서 구현하는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청년동맹의 제일생명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청년동맹을 영원히 수령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이는 길도 수령결사옹위에 있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도 수령결사옹위에 있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수령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숭배심을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장군님과 마음도 뜻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청년들속에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이 엮어 지던 나날에 청년운동사에 아로새겨 진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심어 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절해고도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 태우고 단두대우에서도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높이 부르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틀어 쥐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전투적기치이다.

청년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선군업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이와 함께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살아 나가게 하기 위한 교양,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살리고 우리의것을 적극 살려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총대를 사랑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대가 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최고의 충성도, 최대의 애국도 조국보위에 있다.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입대하며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세기는 바뀌고 세대는 교체되여도 혁명의 과녁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모든 청년들은 날로 격화되는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군사를 성실히 배워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속에서 계급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한다.

. . .

청년들은 우리 제도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대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보람찬 전투장은 우리 청년들의 활무대이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청년들이 떨쳐 일어 나 기세를 돋구고 혁신을 일으켜야 온 나라가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게 할수 있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맨손과 등짐으로 청년영웅도로를 일떠세우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해 나가던 그 기백, 그 기세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 피우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비롯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 . .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충성의 애국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청년동맹의 기발이 휘날리는 곳마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김정일**시대의 청년영웅들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상관점을 가지고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와야 한다.청년동맹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청년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청년들과의 사업을 그들의 포부와 지향, 사상감정에 맞게 참신하고 패기 있게 전투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잘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

. . .

오늘 우리 당은 일관하게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베풀고 있으며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전체 청년일군들과 청년들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할것이다. (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7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1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인민이 겪게된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전기가 부족한 것이였습니다. 긴장한 전력사정으로 해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고 철도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생활 분야에서도 전례없는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하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마음쓰신 문제의 하나가 전기문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수천수만리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길에서 가장 많은 현지시찰의 자욱은 발전소와 연결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주신 가장 많은 가르치심도 전기문제와 관련되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빨리 결속하고 경제강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 전기문제를 푸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자면 전기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전기는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전기문제부터 풀어야 석탄도 나오고 철과 기계도 나오며 비료와 쌀도 나오고 철도수송문제도 풀리며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공장, 기업소들이 잘 돌아가고 전반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기문제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전기문제를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의 하나로 규정하시였으며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의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규모 화력발전소건설과 운영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국가적인 힘을 넣도록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선,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전력공업발전의 근본방도의 하나입니다.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은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는 경제적 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동력기지입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간, 청천강과 같은 큰 강들이 많습니다. 이 강들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한다면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동력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비상히 강화하고 전력생산을 안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기간이 오래고 자금과 노력이 많은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한번 건설해놓으면 운영비도 적게 들고 관리운영하기도 쉽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가지는 기술경제적 우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 우선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0월 21일, 이 발전소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완공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체85(1996)년 6월 10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언제와 취수부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돌아보시고 대형 물길굴에 몸소 들어가시여 군인건설자들의 고귀한 창조물들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1단계 공사를 빨리 완공하기 위한 방도와 다음 단계의 과업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9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업을 앞둔 이 발전소를 또다시 찾으시여 전력생산을 더 늘이기 위한 물머리 공사를 잘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2단계 공사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연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주체85(1996)년 9월 18일, 안변청년발전소 제1단계 조업식이 진행되였고, 그 해 12월부터 제2단계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와 함께 태천수력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1월, 국방위원회 명령 ≪전당, 전군, 전민이 동원되여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를 하달하신데 이어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태천2호발전소의 능력확장공사와 3호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1년내지 2년안으로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를 굴지의 전력생산기지로 전변시킬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셨습니다. 주체89(2000)년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태천지구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태천수력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과 각지 발전소 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박차며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태천2호발전소 능력확장공사와 태천3호발전소건설,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북야강발전소 건설, 어랑촌발전소 건설, 예성강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는 것과 함께 현존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기에 국가적인 힘을 넣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화력발전소들, 특히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능력을 다 내게 하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11월,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발전기들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을 잘하여 전기생산에 지장을 두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북창의 노동계급은 1호와 8호발전기 개보수와 절탄기 보수를 해제끼고 설비들의 운전조작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고 중유와 석탄 소비를 훨씬 낮추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창과 평양의 화력발전연합기업소들의 능력을 다 내는 것과 함께 전력공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끊임없이 늘이고 전력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하며 이 부문 기술자 후비 양성사업을 잘할데 대한 조치들도 취해주셨습니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중소형발전소건설 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전기문제를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의해서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바치신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인 전기문제를 빠른 기간에 풀기 위한 헌신적 장정의 거룩한 자욱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의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신 것입니다. 대규모 발전소들의 능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발전소들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건설기간도 오랩니다. 이에 비해 볼때, 중소형발전소들은 투자가 적게 들고 건설기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생산지 가까이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풍력이나 원자력에 의거해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도 있고 케니야와 같이 태양열에 의한 전기생산에 힘을 넣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체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은 전기생산의 기본 방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력자원이 풍부한 우리 공화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자체의 실정에도 맞고 최단기간내에 전기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본보기를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과 주체88(1999)년 6월, 9월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강도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건설자재로부터 발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강도에서는 주체85(1996)년부터 주체86(1997)년 상반기까지만도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이미 있던 대상들도 완공해서 수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자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그 경험이 전국에 널리 일반화됨으로써 온 나라에 중소 강하천들에 수많은 중소형발전소가 건설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주체87(1998)년 한해동안에만도 4,940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전국 도처에 건설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정형에 대하여 남조선의 연합뉴스는 ≪이북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형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북은 2-3년내에 전기생산량을 훨씬 늘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으로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중소형발전소 건설 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전기문제를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의해서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가 열리고 강성대국의 지위에 상응하게 살림집 전기화가 실현되는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 일투자협정체결은 경제식민지로 가는 지름길

22일 양국정상,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거세.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2일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왔던 한일투자협정(BIT)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국내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외환 위기를 방지할 수 있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투자는 대부분 물질적 생산이나 고용 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금융투기일 뿐≫이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야기될 경제 ·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투자협정을 반대하는가?

투자협정 · WTO반대국민행동은 투자협정을 해외투자자들의 정치 · 경제적 권리와 무제한의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해외투자자가 아직 투자 활동을 펼치지 않아도, 시장성 조사 등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는 이들 투자의 투자가 국내경제 · 사회적 · 민중적 이해해 부합하는지 심사하거나, 이들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자국의 권리가 아닌 해외투자자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이들은 또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국내 기업활동에 어떠한 조건을 덧붙일 수 없게된다(이행의무부과 금지원칙)고 지적한다.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펼치게되면 고용 창출의 증가,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투자협정은 ≪국내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의 최소기준≫, ≪국내업체와의 협력≫, ≪일정 기준이상 국내 생산품 의무사용≫,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 일정부분의 국내 재투자≫ 등의 요구조건을 부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에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초국적 기업의 투기성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행동은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협정은 그들 투자 활동에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조치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다.

국민행동은 ≪투자자의 권리가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되는 협정≫이라고 평하며, 이 부분은 노사분쟁 시 노동자의 권리 행사인 파업을 정부가 탄압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사무국의 유미경씨는 ≪이 안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 · 집회 · 결사의 자유에 무장경찰과 용역깡패까지 동원하는 정부에게 일본 기업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 반대 집회

투자협정 · WTO반대국민행동과 전국민중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범혜사 앞에서 김대중대통령 · 고이즈미 일본총리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 반대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상임의장은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경제침략의 폭탄인 투자협정을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화려한 겉포장 속에 담아왔다≫며 ≪일본의 아시아 경제침략 음모를 거두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국의 주권 총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총독부 사령관 정도로 생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에서 ≪한일투자협정 NO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오하타 류이치씨는 ≪현재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의 경제를 손아귀에 넣기 위한 야욕의 발로인 투자협정 체결에 힘쓰기보다 자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한일투자협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렸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이들의 의견을 담은 항의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고, 이날 오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한일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한-일 민중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위원회는 과거 일제 침략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이 월드컵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며 고이즈미 방한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일본의 자위대 파견 문제와 관련, 일본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버리고 동아시아 평화 기여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2

한 · 일역사공동연구를 제대로 하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왜곡 재발방지를 위한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의 올바른 구성을 촉구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한국정부가 주장해온 연구결과의 교과서 반영과 역사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핵심쟁점이 양국합의에 반영되지 못한채 ≪각자의 제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연구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는 방향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한다≫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합의를 비판하고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공동기구 참여인사 인선의 원칙과 명단을 투명하게 하고 참여 인사들을 검증할 것△공동연구 과정에서 식민지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진일보했는지, 작년 합의된 7개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태도로 볼 때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일 역사공동기구의 올바른 구성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의 위패를 하루 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2

포항 한미연합훈련장에서 ≪훈련중단≫ 촉구

22일 오후 1시 50분경 포항 영덕군의 한 해변. 평소에는 해수욕장으로 쓰였을 법한 모래사장 위에 완전 군장을 갖춘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란 깃발을 든 군인들은 수신호로 어딘가와 계속 연락을 분주히 주고 받고 있다. 이곳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연합연습의 리허설이 취재진에게 공개된 장소인 독석리의 한 해수욕장이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2월 28일,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RSOI 연습(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해외기지로부터 증원되는 미군을 수용하는 지휘능력을 훈련시키고 평가위한 연습)과 대침투연습인 독수리연습을 연계한 RSOI/FE ≪02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RSOI/FE ≪02 연습에는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와 일본, 괌 등에 주둔중인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며 참가연인원만도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전함들은 일본 요코스카에 위치한 7함대 소속 상륙수송함정(LSD) 두척과 한국 해군의 LST 4척이다. 전함들은 10분간격으로 10여대의 상륙돌격장갑차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 장갑차 가운데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31 MEU(해외원정군) 미군 2000여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30분 예정대로라면 이들의 상륙을 돕기위해 전투기와 전투 헬기 등도 등장해야 하지만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취소됐고 이번 리허설 또한 상당부분 축소돼 진행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장갑차들은 일제히 연기를 내뿜으며 일렬로 늘어선채 해안가를 향해 돌진했다. 전함들은 계속해서 후속 장갑차들을 토해 냈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기관총이 난사됐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위대

상륙작전 리허설은 크게 축소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장갑차들이 해안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복차림의 사람들이 장갑차가 상륙하고 있는 해안가로 뛰어들었다.

≪한반도 전쟁책동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그간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소속 회원 8명이 3미터 정도 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장갑차를 막아선 것이다. 당황한 군인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장갑차는 계속 해안가로 올라오고 있었고 이들은 계속 장갑차를 향해 뛰어들었다.

이들 손에는 스치로폼으로 만든 피켓도 있었으나 크고 작은 몸싸움 과정에서 모두 박살이 났다. 사진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칠세라 열심히 그들을 따라 붙었고 훈련장은 난장판 일보직전까지 갔다. 기자들과 시위대 그리고 군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훈련장을 뛰어 다녔다.

이들은 심지어 장갑차에서 내리는 해병대를 막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전진 앞으로. 결국 안전사고를 우려한 군병력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시위를 하게끔 자리를 열어줬고 이어 들어오던 장갑차들은 이들을 피해 상륙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팀스프리트 부터 여러차례 군 훈련을 취재를 했다는 한 외신기자는 ≪군 훈련과정을 이렇게 막아선 것은 처음본다≫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들 시위대는 리허설이 끝날때까지 ≪주한미군 철거가≫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한미군사당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땅에 기어코 핵전쟁의 불씨를 붙이려는 전쟁광 부시와 사대매국노들의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이라면서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경 상륙해 있던 장갑차들이 다시 바다로 떠나면서 한미연합훈련 리어설은 끝이 났다. 이에따라 시위대들도 시위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산개해 사라졌다.

한편 이번 시위를 주도한 전국연합 소속의 이모씨는 ≪이번 군사훈련을 막기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해상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군사훈련 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는 3월 23일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예정대로 대규모 훈련을 감행한다. 따라서 이를 막으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공희정/권우성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2

한총련, 미국제품 불매운동 선언

네티즌 주도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학생도 동참 선언
각 대학가 맥도날드 불매운동 부터 시작 할 것

≪김동성 금메달 강탈사건≫ ≪부시의 악의축 발언≫ 등으로 네티즌 사이에 번진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을 선언했다.

한국대학총학생연합(이하 한총련)은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주한미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신 독립 운동≫ 인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학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을 ≪한강에 독극물을 뿌려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도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나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F-15 구입을 강요하는 나라≫라고 비판하고 ≪미국제품 불매운동은 미국에 의해 강요된 불평등을 청산하기 운동≫이라고 밝혔다.

옥민석 학생회장(부산대 건축학과)은 ≪맥도날드, 코카콜라, 말보로 등 학우들이 자주 접하는 미국제품부터 불매운동을 시작해 나갈 것≫이며 ≪F-15전투기구입 저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수주의의 발로≫로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되며≫ ≪한국인의 냄비근성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생활 속의 실천으로 실추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운동이 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총련은 온라인 상에 미국 제품불매 사이버 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대학가 맥도널드 불매 1인 시위 전개 △각 대학 정문 · 도서관 · 학생회관에 불매운동 선전판 세우기△ 미국제품 불매운동 포스터 스티커 부착 등으로 대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총련의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대학생들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구제(舊制)≫라고 좋아하는 청바지, 스웨터가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구호품으로 ≪구제(救濟)≫하기 위해 나눠준 옷가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제 3세계의 빈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빌미로 경제적 침탈을 계속해 온 바 있다. 한총련의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미국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2

한나라당+이인제 ≪노풍≫ 저지 총공세

노무현 죽이기, 이인제 살리기

한나라당이 노무현-청와대 음모론을 들먹이며 민주당 노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대선전략을 수정했다.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경선 전에 이인제 후보의 경선불복 사실을 거듭 거론하며 맹공을 퍼붓던 한나라당이 표적을 바꾸었다.

새로운 표적은 노무현 후보이다. 사실상 ≪이인제 후보 구하기 작전≫에 나선 셈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부터 노 후보에 대해 ≪다시 도진 노무현 고문의 좌충우돌 증세≫같은 논평 등을 통해 노 후보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에 대한 공격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제기한 음모론 등을 들먹이며 청와대와 노 후보를 묶어 연신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마치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통일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

한나라당, ≪노풍≫ 타겟 대선전략 돌입

이같은 태도는 노 후보의 강한 바람에 내분까지 겹쳐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이회창 총재에 대한 지지도까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노 후보를 실질적인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즉 대선전략을 수정했음을 말해주는 대목.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다시 도진 노무현 고문의 좌충우돌 증세≫라는 논평을 내 ≪자신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정계개편을 하고 대선후보를 다시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요, 기지도 못하고 뛰려하는 격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같은 날 한화갑 후보의 사퇴에 대해 ≪경선초기부터 민주당 안팎에서 ≪음모설≫ ≪사전 각본설≫이 무성했던 점을 주시한다≫며 ≪특정후보 죽이기≫와 ≪특정후보 살리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정권핵심과의 사전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이다≫며 ≪뭐니뭐니 해도 노후보가 DJ식 음모정치의 계승자이니 만큼 청와대와 짜고 벌이는 연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연계설, 음모론을 거론했다.

이인제 후보의 노무현 죽이기

노 후보를 공격하는 데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인제 후보측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사실은 한나라당보다 앞서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제는 서로간 동맹관계 또는 통일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측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후보가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 정계개편을 한 뒤 새로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선거인단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측은 ≪우군을 공격하여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이 노무현 후보의 대선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우군(민주당 대선후보)을 공격해 적군(한나라당)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서는 쪽은 노 후보가 아니라 이 후보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 후보가 배경은 다르지만 ≪노무현 강풍≫ 차단 측면에서 ≪노무현 공격≫이라는 강수를 택해 연일 맹공을 폄으로써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인제 구출작전≫ 성공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21일에도 논평을 내 청와대 김심 음모론을 또다시 들먹였다. 남경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은 ≪노무현후보는 자신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정계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권력핵심과의 교감이 없이 이같은 중대한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나?≫고 물었다.

남 대변인은 ≪이런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아귀가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경선과정 전반에 이른바 ≪金心≫이 개입했으며 청와대 모실세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청와대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 후보의 음모론을 다시금 부풀려 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20일 최근 노 후보의 급상승과 이에 비해 급락한 자신의 지지도에 대해서 ≪노무현의 인기는 구름이다. 구름에는 뭉게구름 먹구름 등이 있다≫며 ≪나는 여론 조사결과에 관심없다≫고 대수롭지 않은듯 말했지만 속내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처럼 각종 논평을 통해 노 후보에 대한 공격, 청와대 음모론 제기, 이 총재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한나라당이 이인제 후보 중심의 대선전략에서 이미 노선을 수정해 노무현 후보와의 대결을 상정한 대선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여준 의원이 이미 노무현 후보를 상대로 한 대선전략을 이 총재에게 올렸다는 것이다.

김근태 후보의 사퇴와 광주 경선에서의 승리, 당내 개혁파 의원 및 인사의 지지선언, 각계, 지역민의 지지선언,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급상승세 등으로 강하게 불어닥친 ≪노풍≫에 이제 한나라당은 사실상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상정한 대선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청와대 음모론, 노 후보에 대한 맹렬한 비난 등은 그 시작에 다름 아니다.

동시에 노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통해 노 후보를 경선에서 낙마시켜 본선에서의 대결을 피하고, 비교적 상대하기 수월한 것으로 보는 이 후보와의 대결을 원하고 있는 속내의 반증이다.

때마침 인터넷게시판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풍자하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인죄 일병 구하기≫ 사진이 유통되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의 이인제 후보 구출작전은 성공할 것인가? ≪노풍≫을 차단하고,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구하는 작전이 성공해 본선에서 이 후보와 이 총재가 대결해 재집권을 꿈꾸는 전략이 먹혀들어갈 것인가 주목된다. 또한 경선 가도에 비상이 걸린 이인제 후보의 노무현 물어뜯기는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선거인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스스로 자신의 지지도 추락에 돌을 매다는 역풍을 만날 것인가?

결과가 어찌되었든 헌정사상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대파란을 일으키는 노무현 후보에 대해 민주당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협공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준희기자
디지털말 2002/03/21

남북 민간차원, ≪아리랑축전≫참가 본격 논의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 참가문제와 관련, 남북이 민간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측 민화협의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새해맞이준비위)는 오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2002년 민간단체의 다양한 행사교류와 아리랑축전 참가≫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4월4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측 새해맞이준비위는 북측 민화협에 지난 9일 ≪3월16일 평양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21일부터 27일까지 남측에서 열리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3월에는 실무회담을 열 수 없다면서 4월초에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다시 제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가맹 · 산하조직에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 조직의 건≫ 공문을 보내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1차 참가단 조직화≫와 관련 4월13일까지 각 연맹, 지역별 참가신청서를 중앙으로 취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공문에서 4월 초 예정된 북측과의 실무협상 후 방북일자와 세부일정, 참가경비, 교통편 등 세부지침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리랑축전≫과 관련, 남북간 민간차원에서는 참가문제 논의가 그리고 남측 민간차원에서는 참가단 모집이 본격화.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계환기자
통일뉴스 2002/03/22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2)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정세가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는 환경속에서 남조선의 진보적세력들은 당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오다가 마침내 1960년 11월 24일 사회대중당결당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당을 내왔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었으며 광범한 민주주의적력량의 통일전선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묶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다.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북과 남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이 혁명적진출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며 그의 식민지통치기구를 뒤집어 엎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여기에 적극 인입하지 못하였다. 5.16 《군사정변》이 있은후 원쑤들의 야수적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였다. 사회대중당은 파괴되였으나 그의 지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경험을 남겨 놓았다.≫ (사회대중당, 정치사전)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정당의 하나.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에 창립되였던 조선민주당을 1981년 1월 29일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편한 정당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가, 종교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조선사회민주상의 지도리념은 민족사회민주주의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그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한다. 조선사회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치주장은 인류의 공통적인 지향인 자주, 독립, 민주주의, 평화, 인권옹호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민족에 의한 민족의 억압이 없는 리상사회건설을 최종목적으로 하며 당면하게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인간존중, 민중본위의 복지사회건설을 촉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정강으로 삼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이루는 한 정당으로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정치사전)

≪광복후 우리 나라에 있었던 진보적정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민당은 근로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는 진보적정당이며 또한 그 구성성분을 보아도 거의 다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권, 318페지)

조선신민당은 1946년초에 주로 농민과 근로인테리들을 망라하여 북조선과 남조선에 각각 조직되였다. 당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었다. 신민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근로대중의 통일적당건설방침에 의거하여 1946년 8월 28일 공산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에 인입되였다. 남조선에서도 신민당이 공산당 및 인민당과 합당(1946년 11월 23일)하여 남조선로동당에 인입되였다.≫ (조선신민당, 정치사전)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의 조직형태에는 기본상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와 련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당면하게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고 주체적 역량을 키우며 그에 기초하여 점차 다른 정당, 정파, 단체들과 련합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인 련합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전선 형성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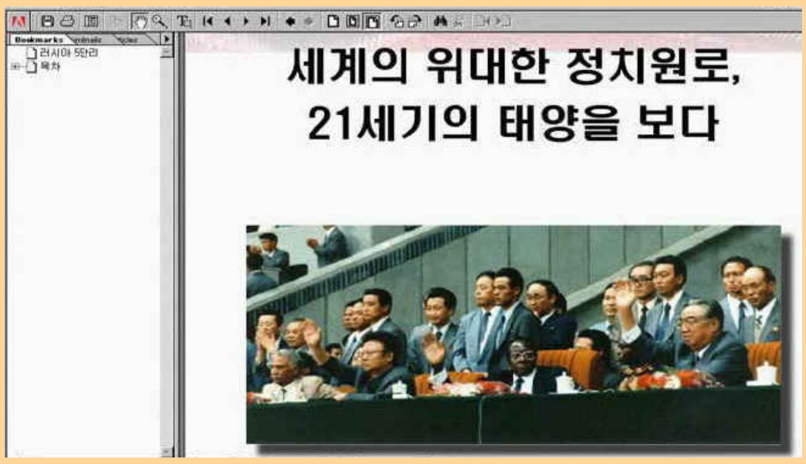
➡

광고

하나컴퓨터 특별기획

임오년의 태양찬가

하나컴퓨터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경향각지에 넘치는 이남민중의 숭배열기를 담은 신문, 잡지, TV, 인터넷홈페이지를 종합편집하여 다정한 네티즌들에게 보냅니다.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란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한 큰 덩어리의 군중단체(청년단체, 여성단체) 또는 통일전선적 당을 말한다.

남조선에서 당의 역량이 약한 현단계에서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다.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합전선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합전선체는 그 주체세력이 강하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된 토대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역량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합법적으로 정치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는 지하당이 당장 다른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전선체는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이다.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인 통일전선적 합법당이나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는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과 같이 그렇게 강유력한 통일전선체로는 될 수 없으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의 합리적인 조직형태로 된다.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나 통일전선적인 합법당과 같은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어느 개별적인 계급이나 계층을 망라하는 계급계층별 조직과는 달리 공동의 구호, 통일전선적인 강령에 기초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소상인, 수공업자,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의 조직에 통일적으로 망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당, 단체의 연합전선을 이룩함이 없이도 단일한 대중조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과 군중, 민주인사, 민족주의자들을 직접 연결시키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게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지하당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도 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지하당의 역량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는 당의 활동이 비합법적으로 전개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적인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합법적 거점이 있어야 한다.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나 통일전선적인 합법적 당과 같은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지하당의 합법적인 통일전선 거점의 형태로 된다.

특히 우리 당의 영향하에 있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당은 여러 정당, 단체들과의 통일전선운동을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당조직을 가지게 된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이러한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당면하게는 반외세, 반파쇼, 반독재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각 정당, 단체, 민주주의적인 당파들과 제휴합작하여 보수정당 내의 반파쇼세력을 끌어들여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통일적인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운동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이용하여 통일전선형태의 합법적 군중단체와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내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이다.

. . .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란 전 남조선적인 범위 또는 중요 지역적인 범위에서 반미구국의 기치 밑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공동연합체를 말한다.

남조선에서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전선운동을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가장 강력하고 전투력있는 통일전선형태이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무엇보다 여러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는 것만큼 이러한 정당, 정파, 단체들의 모든 조직들과 수단들을 발동함으로써 대중운동, 혁명운동을 힘있게 벌일 수 있는 강력한 조직적 힘을 가진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또한 그에 망라되어 있는 여러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물들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 수 있다.

연합전선에 참가하는 정당, 정파, 단체들은 여러 계급계층들 속에서 조직되어 활동한다. 그러므로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여러 계급계층들 속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통하여 넓은 사회적 범위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면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게 된다.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는 특히 각이한 계급계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여러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는 만큼 그들을 발동함으로써 여러 방향과 측면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조직진행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정당운동의 경험은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가 광범한 대중과 정치세력을 묶어세우는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광범한 계급계층과 사회정치세력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의 기본조직형태는 정당, 정파, 단체들의 연합전선체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고 특히 지하당의 합법적인 통일전선 거점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반미구국의 기치 밑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 정당, 정파, 및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통일전선론, ≪통혁당≫ 1980년대 중반)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1)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40년대에 국토분단의 비운을 겪고 민족재통합의 험난한 길을 헤쳐온 우리겨레는 7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령도자를 통일의 구성으로 맞이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해 분단의 장벽에 파렬구가 생기고 남북의 고위급정치협상에서 공동성명서의 발표가 합의되여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은 때였다. 그러나 남북협상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던 박정희일당은 공동성명을 왜곡하고 그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이른바 ≪단계론≫을 들고 나왔다.

이런 형편에서 남북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기까지는 많은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성된 난국을 헤치고 공동성명을 명실공히 통일의 대헌장으로 되게 하는데서 걸출한 공적을 이룩하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이신였다.

그분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령도예술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공동성명의 기본핵이 될수 있게 현명하게 이끄시고 성명초안의 문장 하나, 어휘 하나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다듬어주시였다. 이렇게 하여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자주적인 통일헌장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공동성명발표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공동성명의 핵은 수령님께서 제시한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입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을 빨리 발표하여야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 세계가 벅적 떠들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민족애가 구현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였다. 이 격동적인 소식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를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게 하고 3천리강토를 통일의 열풍으로 휩싸이게 하였다.

그분께서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우리의 성의있고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외세의존로선과 민족분렬로선에 대한 민족자주로선과 조국통일로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해외의 여러 교포단체들은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는 성명, 담화를 발표했고 세계여론의 초점이 조선반도에 모아졌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이 력사적인 사변을 8.15해방의 감격과 비유하면서 ≪통일의 밝은 서광≫, ≪분단동토에 도래한 눈녹이≫라고 환성을 울렸다.

(계속)